



대면 등교 첫날인 20일 오전 제주여고에서 선생님이 5개월여 만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손을 흔들며 반기기 때문이다. 강희만기자

아이들이 돌아왔다... 친구도 선생님도 “안녕”

20일 도내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 시작
교실 안팎에서는 코로나19 예방으로 분주

5개월여 만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다.

20일 오전 제주여자고등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교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27일 겨울방학 이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학교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안경을 낀 학생들은 마스크로 인해 렌즈에 김이 서린 채 교실로 향했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체육관에서 별도의 발열체크를 받아 고열 여부 등을 확인 받았다. 이날 제주여고에 등교한 고3 학생은 265명이다.

교실 안에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놓여져 있었고, 교단에도 각종 방역물품이 비치돼 있었다. 책상은 시험을 치를 때처럼 서로 간격을 둔 채로 한줄로 배치, 왼쪽 뒀 앞줄부터 번호순으로 착석했다.

조희시간이 되자 3학년 1반 담

임 선생님은 학생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다음 정부에서 내려온 방역지침을 학생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내용은 학생간 거리두기, 수업 후 소독, 방역 담당 학생 지정, 급식소 입실 요령 및 시간 등이다. 고지영 학생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녀야 해서 불편하지만, 몇 달만에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 너무 신난다”면서 “개학이 시작된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임시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연지 학생은 “EBS 강의로 임시를 준비했지만, 아무래도 대면수업보다는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상황이기에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임시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남은 일정을 효율적으로 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3학년 교사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기범 3학년 부장교사는 “첫날이라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방역지침이 제

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상시 지도에 나설 것”이라며 “고3 개학의 영향이 앞으로 등교할 나머지 학년부터 초·중학교까지 미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지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주변 상인들은 등교수업에 반색을 드러냈다. 제주여고 주변 편의점 관계자는 “개학이 이뤄지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오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편의점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부디 아무런 문제 없이 수업이 진행돼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안심하고 다니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3 등교를 시작으로 27일 고2·중3·초1~2·유치원 ▷6월 3일 고1·중2·초3~4 ▷6월 8일 중1·초5~6 등이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등교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초등학교 13곳·중학교 7곳)의 경우에는 추가 초·중학교가 20일 등교수업을 했다. 나머지 학교는 25일부터 등교를 시작한다.

송은범기자

민간보조금 일괄 삭감 ‘무리수’

도, 2월 일괄 10% 이어 이달 10~30% 감축조정
“재정위기 도민 전가… 의견결 침해” 반발까지

제주특별자치도도가 지난 2월 올해 민간보조금사업에 대해 일괄 10% 삭감한데 이어 5월에 2차로 사업에 따라 10~30%가량을 추가 삭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코로나19 사태로 가뜰이나 힘든 민간단체에 어려움을 전가하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의회가 예산 심의를 마치고 도가 동의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 차원에서 보조금 삭감 등 재조정하는 행위는 도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견결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한 올해 민간보조금 규모는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 등 6개 분야 3729건·8971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비 587건·5483억원,

지자체 3142건·3488억원이 투입된다. 도 자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1350건·944억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은 513건·239억원 규모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지역경기가 마비인 상태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두차례에 걸쳐 삭감하며 되레 행정당국이 경제적 위기감을 조장하고 재정위기 상황을 도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는 최근 보조금 사업을 하는 도내 민간단체에 ‘2020년도 예산 지출구조조정 추진 계획 알람’ 공문을 통해 세수 감소 등으로 대폭적인 재정적자 및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등을 초빙·구성한 T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오는 7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모든 보조사업을 포함해 필요성·긴급성·효과성·효율성 등 사업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최종적으로 TF에서 사업별로 전액(일부) 삭감을 논의 중”이라며 “지난 2월 10% 절감한데 이어 사업별로 10~30% 추가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행정 내부의 경성경비 절감이야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도민에게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보조금을 일괄 10% 삭감하는 것은 모순이자, 의회 의결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팔로는 ‘절감’이지만 집행부의 독단적 ‘삭감’이고, 특히 주민에게 지급할 예산을 도의회 동의없이 삭감하는 것은 법률을 위배해 뺏아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지하수 통합 보전·관리체계 구축 나선다

도, 제주연구원 내 지하수연구센터 9월 출범 예정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연구 및 정책개발에 나설 제주 지하수연구센터가 오는 9월 출범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제주연구원과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설치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제주연구원 내 지하수연구센터 설치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하수 계획·조사·관리를 통한 수자원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지하수 과다개발 및 수질오염 등 지하수 위생요인 급증으로 지하수의 공공관리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 연구조직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제주 지하수연구센터는 수자원연구팀, 수질연구팀, 정보분석팀 등 총 3팀·20명(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16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올해는 기존 사업인력을 포함해 10명 이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단계별로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천수 전수조사 및 가치 보전·활용방안 마련 ▷지하수 관측망 운영 ▷지하수 바로알기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운영이 안정화되면 보다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설립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도 산하 출연 연구기관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정합 청탁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받지 않고 청렴·공정하게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청렴서약제’를 20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서약제’ 전국 첫 시행
제주도의회 20일부터 도입

현재 도의원이 조례안을 마련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로 규정에 따라 입법담당관실

에 검토를 의뢰해 검토회신을 받고 있다. 이 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뢰서와 검토결과 회신서에 도의원과 이를 검토한 담당공무원이 청렴서약을 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입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2020 NEXT LOCAL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 2기 청년창업팀 모집

로컬과 함께하는 미래, 청년 x 비즈니스를 담다

2020.5.11(월)~6.7(일)
www.seoulnextlocal.co.kr

모집기간 5월 11일(월)~6월 7일(일)
모집대상 서울시 거주 청년 참여자(만 19~39세 이하)

참가지역 강원(영월, 평창) / 충남(홍성) / 전북(고창) / 전남(목포, 나주, 강진, 영광) / 경북(경주, 의성) / 경남(고성, 합천) / 제주 총 13개 지역

지원사항 최대 7000만원 사업비지원
문의처 www.seoulnextlocal.co.kr
02-6384-3222

코로나19, 함께 막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의: 관할 보건소 / 1339 / 120)